



1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클롬보는 레디투웨어로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다. 2 베이식한
디자인의 케이트 재킷. 3, 7 클롬보
노블 파이버 브랜드 북에서 발췌한
고산지역에서 서식하는 캐시미어,
비쿠냐, 과나코의 사진. 4 케이트
재킷의 광고 비주얼. 5, 6 최고급
캐시미어 원단의 견본과 원단
생산의 마무리 단계인 염색 공정.

2



THE CULTURE OF QUALITY

밀라노에서 스위스와 접한 국경 쪽으로 한 시간 반 남짓 떨어진 작은 마을 보르고세시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캐시미어를 생산하는 콜롬보 노블 파이버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원재료의 선택에서 소재와 완제품 생산까지 직접 전 공정을 지휘하는 가족 기업의 대표 로베르토 콜롬보를 만났다.

컬렉션 기간마다 밀라노는 수도 없이 드나들었지만 이탈리아의 그 지역은 여행조차 가보지 못한 나로서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국경에 자리하고 있다는 콜롬보 노블 파이버(COLOMBO Noble Fibres)의 본사 방문 제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땀방울 따라나섰다. 보르고세시아(Borgosesia). 참 낯선 지명이다. 늦은 밤 공항에서 바로 도착한 곳은 마조레 호수(Lago Maggiore) 주변에 있는 휴양도시 스트레사(Stresa)였다. 풍광을 감상할 겨를도 없이 풀이떨어져 깊은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 테라스 앞으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오래 유럽의 겨울은 조금은 음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탈리아의 태양은 겨울에도 여전히 낙천적으로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보르고세시아에는 캐시미어와 울 방직 공장이 몇 군데 더 있는데 가족 기업으로 50년을 외부 자본의 투자 없이 그 역사를 이어온 곳은 이곳 콜롬보 노블 파이버가 유일하다고 한다. 2013년 LVMH가 자본의 대부분을 인수한 로로 피아나의 본사와 공장도 바로 이곳에 있다. 내가 이곳을 찾은 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를 생산하고, 또 그 소재로 만든 럭셔리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는 패션 하우스를 이끄는 이곳의 수장 로베르토 콜롬보가 본사의 쇼룸에서 한국에서 온 프레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콜롬보 노블 파이버(이하 콜롬보로 약칭)가 한국에 소개된 지는 이미 몇 년 되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본사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 프레스가 이곳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로베르토 콜롬보는 창업자의 3대손으로 형제카를로 콜롬보와 함께 기업을 잇고 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가족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아들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경영 철학과 기술의 전수는 이탈리아 럭셔리 기업들이 과거의 명성을 잇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듯했다. 로베르토 콜롬보 역시 청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했고, 아버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장 설비와 운영 등을 현대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그는 이미 20대에 아시아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곧두박칠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는 콜롬보의 고급화와 최첨단 방직 설비와 테크니컬한 소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에르메스의 고 장 루이 뒤마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에르메스의 캐시미어 의류 및 머플러의 품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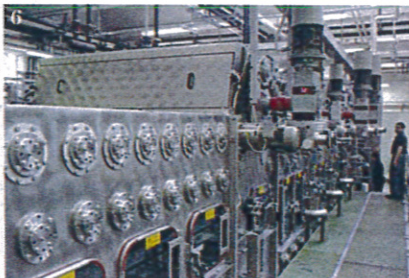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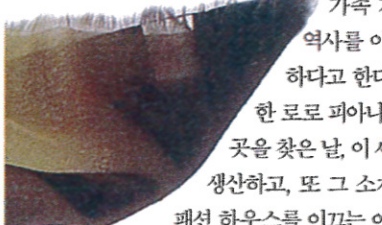


KATE
The original cashmere fleece

을 자랑하며 '캐시미어는 콜롬보의 공이 컸다'고 언급했을 때 로베르토 콜롬보는 가장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콜롬보의 공정은 소재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안데스산맥의 고지대, 중앙아시아의 몽골, 티베트,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등지에 있는 동물 서식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사육 농가와 직거래를 맺기도 하고 몇몇 보호종은 직접 방목해 최상급의 캐시미어, 비쿠냐, 파나코, 안지르, 친칠라, 어미인의 털을 수집해왔다. 콜롬보는 털을 얻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지 않는다. 그는 자연적으로 털갈이를 하는 동물의 털로 원사를 짜내는 공정을 실행하기 위해 15년 동안 털을 수집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원사를 짤 수 있는 분량의 털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콜롬보의 캐시미어 원단은 염소의 속털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위해 몽골의 여성들이 작업장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털을 골라낸다고. 이렇게 골라낸 염소 속털로 만든 원사의 굵기는 15미크론인데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통 80~120미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부터는 희귀 동물 보호 규정인 CITES를 준수하기 위해 비쿠냐, 파나코 같은 희귀 동물은 아르헨티나 농장에서 직접 사육하고 그중 개체수 감소와 수요 증가로 멸종 위기에 처한 비쿠냐는 거래 제한을 위해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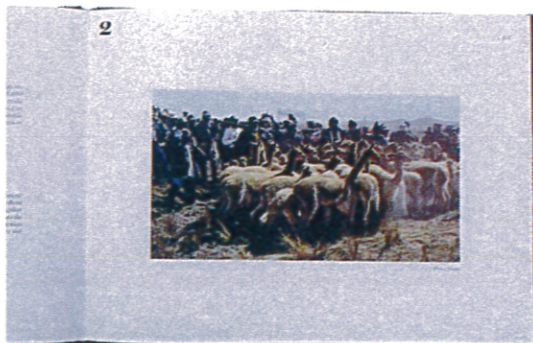
3백50명의 직원이 영혼을 담아 일하고 있다는 공장을 견학했다. 원단을 생산하는 보르고세시아의 공장에는 약 3백 톤의 원사가 있는데 1년 전에 원재료를 구입해 20°C의 온도와 70%의 습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하고 있다. 원사를 이용해 우선 낱실을 뽑고 이를 방직기계에 설치한 뒤 씨실을 삼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캐시미어 원단이 생산된다. 공장을 견학하면서 가장 신기한 건 처음 짜낸 캐시미어 원단이 전혀 캐시미어답지 않다는 점이었다. 마치 거칠게 짜낸 리넨 같다고 할까. 이 거친 원단은 여러 차례에 걸친 공정, 즉 수분과 압력, 또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한 빗질 등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비로소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캐시미어 원단으로 변신한다. 이렇게 생산된 최고급 원단은 에르메스를 비롯한 루이비통, 프라다, 디올, 세린느, 구찌, 휴고 보스 등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다.





콜롬보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재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하이클래스 캐주얼웨어를 컨셉트로 하는 남녀 레디투웨어 라인을 론칭했다. 2010년 9월, 밀라노의 명품 숭이 즐비한 비아 델라 스피가 33번지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리테일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콜롬보 여성 라인 중 가장 아이코닉한 아이템은 미디엄 길이의 싱글 브레스티드 케이트 재킷. 최고급 캐시미어와 실크를 사용해 부드럽고 착용감이 편안하다. 디자인은 하나지만 매 시즌 컬러를 바꿔 신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여러 색깔의 케이트 재킷을 컬렉션하는 고객도 많다고 한다. 이 재킷이 '케이트 재킷'으로 불리는 이유는 케이트 콜롬보가 콜롬보의 레디투웨어 디자인 디렉터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리카르도 콜롬보의 아내이자 콜롬보에서 25년 넘게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이 재킷을 디자인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직접 이 재킷의 모델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럭셔리하고 우아한 이탈리아 상류사회의 여성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복 역시 멋지다. 고리타분한 켈트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빈티지풍의 엄숙 덕분에 젊고 자유롭고 세련미 또한 넘친다. 특히 리카르도 콜롬보의 지속적인 R&D 지원을 통해 생산된 하이 테크놀로지한 캐시미어 소재는 방수 가공은 물론이고 탄력성 있는 네오프렌 등과 접합해 활동성과 실용성을 더한다. 콜롬보의 여성복과 남성복은 롯데 GF를 통해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인터뷰와 공장 견학이 끝나자 리카르도 사장은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낮에 만나지 못했던 디자인 디렉터인 아내 케이트 콜롬보가 기다리고 있는 콜롬보 가족의 응접실. 부부는 결혼하던 해



에 집을 구하던 중 이 집에 걸려 있던 가족사진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주인인 여든 노인에게서 이 오래된 집을 샀다고 한다. 그들은 이 집을 2년 넘게 수리했다. 원래 작은 호텔이었던 집을 개조해 가정집으로 썼는데 새 주인이 된 젊은 부부는 과거의 기억과 사진을 더듬어 1백여 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고고하고자 했다. 어딘지 모르

게 동양적이고 낡은 듯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공간. 그들 역시 가족사진을 액자에 넣어 올려두었는데, 세 자녀와 함께 보낸 과거의 아름다운 시간을 집 안 곳곳에 세겨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탈리아는 유독 가족이 모여 국가를 이루는 나라인 것 같다. 가족 기업으로 성장해 이탈리아인 럭셔리 참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아페르티브였다. **mc editor** 손기연



interview



“마케팅보다는 품질이 중요한 시대” 리카르도 콜롬보(콜롬보 노블 파이버 사장)

어떻게 노블 파이버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1970년대에는 캐시미어가 지금의 비쿠냐처럼 고급스러운 소재였다. 아버지가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공장을 하셨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작은 공장이었지만 나중에는 원단의 고급화를 통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때부터 '원사 고급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했다. 1996년에는 러시아, 캐나다, 칠레 등을 돌며 캐시미어 대체품을 찾았다. 이때 털갈이한 동물들의 털을 이용해 고급 원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970년대 캐시미어처럼 지금은 비쿠냐가 최고급 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의 최고급 소재는 무엇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비쿠냐를 비롯해 알비노 낙타, 어마인 등의 동물에서 채집한 최고급 소재는 이미 최상위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어떤 가공 기술력이 더해 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기존의 원사들과 어떻게 다른가? 고급 소재는 원재료를 어디서 구입했는가 가장 중요하다. 캐시미어 같은 경우 얼마나 가늘고 긴지가 품질을 좌우한다. 동물의 특성상 솜과 건조하면 솜솜한 털이 나게 되는데, 이 경우 털이 가늘다. 콜롬보는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몽골 아라산 지역에서 양질의 캐시미어를 구한다. 콜롬보는 원사를 가공해 원단으로 만드는 과정도 특별하다. 캐시미어를 염색하거나 스팸 소재를 합성해 신축성을 더하는 기법 등은 이미 20-25년 전에 콜롬보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원단 생산 이외에 리테일 사업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 여성들이 우리 옷을 입으면 스스로 만족하기를 바랐다. 여성들의 자신감은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었을 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현재 보르고세시아와 겐메 지역으로 생산 라인을 나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르고세시아에서는 원단을 생산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겐메에서는 20년 전부터 아내 케이티가 레디투웨어를 만들고 있다. 25년 전 회사에 합류한 케이티는 액세서리 디자인부터 시작해 지금의 레디투웨어까지 만들 정도로 성장했다. 베스트셀러인 케이티 재킷 역시 그녀의 이름을 딴 제품이다.

양질의 캐시미어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세 가지만 알려주기 바란다. 좋은 제품은 광택과 입체감이 눈으로 느껴진다. 손으로 만졌다가 폼을 때 구김이 가지 않는 점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털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제품을 골라야 세탁했을 때 변형이 적다.

홍콩, 도쿄, 서울에 이어 2015년엔 중국에까지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 들었다.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1년에 2개 정도씩 매장을 열 생각이다. 패밀러 비즈니스로 자부심이 큰 만큼 회사에 팔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식 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웃음) 지난 몇 년간 중국에도 경제 위기가 왔지만 최고급 럭셔리 제품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전 소비자도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안목을 갖고 있다. 기업의 마케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품질이 중요한 시대다.

1 15미크론의 가느다란 캐시미어
 원사에서 남실을 뽑아내는 공정.
 2 최귀중한 비류나. 3 곁돌보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걸고 겔메 공장에서 전 공정이
 관리되고 있다. 4 처음에 직조된
 캐시미어 원단은 리넨처럼
 거칠지만 다양한 공정을 거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로 재탄생한다.
 5 낡은 듯 멋스럽게 염색된
 울폼보의 남성 재킷.
 6 캐시미어의 속털과
 걸털을 구분하는
 동굴의 작업장 풍경.

5

6



MARIE CLAIRE (1)



1. Since 2000, COLOMBO has expanded its business into the sphere of ready-to-wear.
2. Kate jacket with a basic design
- 3,7. Cashmeres, vicunas, and guanacos that inhabit an alpine region
4. Ad image of Kate jacket
- 5,6. High-end cashmere fabric and dyeing process in the last stage of manufacturing

MARIE CLAIRE (2)



Borgosesia, a small town near the Italian-Swiss border to which it takes one and a half hours to get from Milano. It is where the headquarters of COLOMBO Noble Fibres are located, which has produced the best cashmere in the world. We met Roberto Colombo, the CEO of the family business, whole producing process of which is under his control.

On Milano fashion weeks, I had visited Italy, but I had never been to the other places in there before I was invited from COLOMBO Noble Fibres. So, I went there with heart-throb and excitement. Borgosesia is an unfamiliar town. It was Stresa, a resort city which is near Lake Maggiore, that I arrived from the airport late at night. When I woke up after deep sleep, I could find a great view like a beautiful scene in a movie over the terrace. I had thought European winter was shady and damp, but Italian sunlight was still warmly and cozily shining on the ground.

There are several factories for cashmere and wool in Borgosesia. Among them, COLOMBO Noble Fibres is the only company that has kept their family-owned business without any external capital for 50 years. The head office and factories of Loro Piana, which took most of the stake of LVMH in 2013, are also placed there. On the day I visited Borgosesia, in the showroom, Roberto Colombo, who is the CEO of COLOMBO Noble Fibres, was waiting for us, the press from Korea. He has been leading the company which has produced the world's highest-priced and most luxurious cashmere, and designed fashion items with the fabrics. He said, although it has been a

few years that COLOMBO (short for COLOMBO Noble Fibres) was known to Korea, this time was the first time that Korean press visited and covered the head office. Roberto Colombo is the descendant of the founder in the third generation and has taken over the family business with his brother, Giancarlo Colombo. In the interview, he wa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n the family business. After his interview, we came to think that the key factors which Italian luxury brand companies can keep their fame with would be the technology and management philosophy passed down from posterity to posterity. When Roberto was in his youth, he already made various proposals for the business to his father. He accepted Roberto's and modernized facilities and operating system on his son's proposals. Roberto has ever been to Korea and Japan in his twenties to extend business into Asia. Textile industry has gone into a decline in Italy as well as in Korea. However, Roberto has consistently made a large investment to develop higher-quality fabrics, to modernize spinning and weaving equipment, and to make COLOMBO high-grade. He cast back to the moment that the late Jean Louis Dumas at Hermes said the quality of the cashmere garments and mufflers of Hermes are attributed to COLOMBO, and Roberto told us that it was the most satisfying praise he had ever received.

The first step on the production process is to select a material. Roberto himself has visited the habitats of the animals in the alpine region, Mongolia in Central Asia, Tibet, and Patagonia of Argentina, and he has made a direct dealing with farms. For some rare and protected species, he has grazed them on the pasture to collect the top-grade cashmere, vicuna, guanaco and so on. COLOMBO doesn't mistreat and kill animals for the furs, but gathers furs when the animals are molting. It takes 15 years to gather an enough amount of furs to weave yarn, Roberto said. And, he explained they only use the downy hair of lambs for cashmere fabrics, so Mongolian women pull out the hair with hands. The yarn is 15 microns thick. Compared with the fact that human hair is commonly 80 to 120 microns thick, it is incredibly thin. To comply with CITES which is regulation to protect rare animals, the company has raised rare animals such as vicunas and guanacos in a farm in Argentina since 1992. In the case of vicunas on endangerment, as their population has been decreasing but the demand for vicunas has been increasing, COLOMBO puts marks-of-origin on their products.

We visited the factory in Borgosesia that 350 workers work at. It has stored about 300 tons of yarns which were bought a year ago and has kept the temperature in the storage at 20°C and the humidity at 70%. The most impressive thing was that the cashmere woven at first looks like linen roughly woven, but through the next processes with moisture, pressure, or combs as a traditional method, this linen-like cashmere comes to have refined sheen and to change into a luxurious fabric. Then, the cashmere is used for Louis Vuitton, Prada, Dior, Celine, Gucci, Hugo Boss and others.

MARIE CLAIRE (3)



COLOMBO launched ready-to-wear lines for men and women with high-class casual wear concept on their fabric brand value in 2000s. In September 2010, a flag-shop was opened at 33rd Via Dellar Spiga street, where there are a lot of luxury shops and rang a bell to begin a successful business. The most iconic item on women's is a single-breasted Kate jacket which is designed with executive cashmere and silk. Even though it has only one style, there are a lot of customers who collect the jackets by color because the jacket has a variety of colors on every season. The reason why this jacket is called Kate jacket is because Kate Colombo, the wife of Ricardo Colombo, has worked as a design director for 25 years and designed this jacket. She has also

become the model of the jacket and shown the women's life of an Italian high society. Men's is gorgeous, too. It is not for old-fashioned and stuffy gentlemen but for young and sophisticated men. It also has its own vintage flavor on dyeing. High-technically manufactured cashmere through the R&D support of Ricardo Colombo could have not only waterproof but also activity and practicability using elastic neoprene. Women's and Men's of COLOMBO are imported to Korea by Lotte GF, so we can meet the brands in Korea.

After the interview, Ricardo invited us to his house and we could see his wife, a design director Kate, in the living room. They told us the story that they bought this old house in the year they got married because of the happy family picture on the wall. Actually this house used to be a small hotel, but the host repaired and renewed the hotel into a home over 2 years. After buying this house, young Ricardo couple tried to restore it as like as the former hotel 100 years ago. It finally could be changed and have oriental and antique mood with warm and cozy hand-touch. There were a lot of frames with their family photos all over the house. These photos made us feel like the couple carved their beautiful reminiscence with three daughters. We could feel the owner's fervor that he tried to grow up the company to family business and to let people know the true Italian luxury goods.

"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marketing " – Ricardo Colombo (The president of COLOMBO Noble Fibres)

How did you come to be interested in noble fiber industry? In 1970s, cashmere was such an expansive fabric like vicunas' now. As my father ran a cashmere factory, I naturally got interested in it. At that time, the factory was so small, but I thought soon or later it could be grown up with upgrading the fabric. From the time, I planned a plenty of business on 'luxury yarn project'. In 1996, I visited Russia, Canada, Chile, and so on to find a cashmere substitute, and I thought I would use molting animals' hair to make luxury yarns.

Now vicunas' hair has been given much attention like 1970s' cashmere.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most luxurious fabric? I think the most luxury fabrics made of vicunas' hair, albino camels' hair etc. have already reached the top, so from now on, which processing technique is added will be the key point.

How is COLOMBO noble fiber different from other yarn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material is where it is purchased from, and for cashmere hair, the quality is up to how thin and long it is. Animals' hair becomes tufted and thin in cold and dry weather. We, COLOMBO, buy good-quality cashmere hair in Alashan, Mongolia which is located at the north-eastern of China.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COLOMBO is very unique and special. The methods to dye cashmere or to add elasticity into cashmere with synthesizing span yarn are what COLOMBO first developed about 25 years ago.

What is the reason you launched retail business? I would like women to be satisfied with themselves in our garment. We can recognize women's confidence if looking at their eyes. I want to make garments which can give pride to anyone who wears our garment, not just to show the outfit to others.

Is there a reason you divided the producing line into two regions which are Borgosesia and Ghemme? Borgosesia is for fabrics and Ghemme is for ready-to-wear apparel that my wife, Kate, has made there since 20 years ago. 25 years ago Kate entered the company, she started accessory design at first and later she grew up to be a great fashion designer. The bestseller, Kate jacket, is the product named after her.

Would you like to tell three of your tips to pick up good-quality cashmere? Firstly, it is elegant luster and texture, secondly, not easy to wrinkle, and finally lint-free. That kind of cashmere usually doesn't lose the shape after washing.

I heard you will expand your business to China in the next to Hong Kong, Tokyo, and Seoul.

What do you think about next Asian market? My plan is to open two or three shops a year not in a hurry but with patience. Since I have pride of my company as a family business, I don't want to sell it (But, I don't know whether my son will do or not. Laughing). For years, China has had economic crises, but the best luxury goods have not been affected. Now customers have their own view to select good product, so it is not enough to attract customers just with marketing. Now is the era that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marketing.

MARIE CLAIRE (4)



1. Extracting warp from 15 micron cashmere yarn
2. Rare species – Vicuna
3. COLOMBO manages and controls the whole producing steps of the factory in Ghemme with the pride of 'made in Italy'
4. First woven cashmere is a little rough like linen, but through the other steps cashmere is reborn as a luxurious fabric
5. Like worn-out, but fashionably dyed men's jacket of COLOMBO
6. Sorting out hair in the factory in Mongolia